

2026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광주문화방송(주)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 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4	4.15	회의실	10/12	4	1	15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양우·박종수·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장은백·정인영·정희(10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서준배(콘텐츠본부장 직무대행),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8	3	0	0	11	0	11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 참고	반론	합계
건수	11	0	0	11

다. 의견제시(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농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뤄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소멸 농촌엔 달지 않는 ‘햇빛소득마을’(4.27), 광주시, 8천400여 농가에 ‘농민공익수당’ 지급(4.28), 전남 농기원, 국가 공인 한우 씨수소 2마리 배출(4.29), <뉴스데스크> “까말게 타버린 배꽃··재해 인정해달라”(4.29) 등 방송 조치	’26.4
”	지역 관광 산업 관심 바람	<뉴스투데이> 장성 백양사 등 천년사찰 5곳 명상관광지로(4.21), 8년 재생사업 끝낸 ‘개항기 목포’(4.21), 관광객 줄고 배도 줄고··흑산·홍도 ‘흔들’(4.24), 섬 박람회, ‘교통·폭염’ 정부 지원 사활(4.28), <뉴스데스크> “가족과 함께 즐겨요”(5.2) 등 방송 조치	”
”	광주FC를 서울FC로 방송함. 정확한 전달 필요	보도 책임자와 담당 팀장 의견 전달 조치(4.27)	”
”	관광 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광주와 전남 연계 체류형 문화관광권 확장”(4.28), <뉴스투데이> 7천만 명 찾아왔는데, 숙박·소비는 ‘반토막’(4.29) 등 방송 조치	”
”	여론조사 데이터 정확해 긍정 평가함.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 해주길 바람	보도 책임자와 담당 팀장 의견 전달 조치(4.27)	”
”	농어촌 의료 문제 관심을 두고 다양한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보건진료 인력’이 빈자리 채운다(4.25), <뉴스투데이> “어르신만 진료합니다”··‘노년내과’ 개설(4.21), <뉴스투데이> 인구 15만 도시에 공보의 딱 1명(4.20) 등 방송 조치	”
”	5.18에 관한 보도, 프로그램 등 제작 바람	<뉴스데스크> 5.18 헌법 수록, 국힘만 ‘묵묵부답’(4.17), 5·18정신계승위원회, 국회에 개헌 착수 촉구(4.20), 물·뭍·기억 5월을 보는 세 개의 시선(4.22), “오월 정신을 헌법으로”··개헌 추모 영원(5.5), <모두의 오월 5.18 민주화운동> 캠페인 제작, 송출(5.1-5.31) 등 방송 조치	”
”	호남선, 전라선 KTX화 문제에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광주송정역-수서부터 SRT·KTX 하나로 달린다(4.15)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의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공연, 전시, 영화, 행사 등 매주 목요일 방송 조치	
"	<테마기행 길>에서 소개한 청년들의 성공 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주길 바람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게시 조치(5.6)	
"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 시청자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 정보 제공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초등학교 교과 시간 외 운동 금지(4.22), 온라인 거래 관련(4.29) 등 방송 조치	
합계		11건	

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 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농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뤄주길 바람	농업과 관련해 방송 3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	○		
"	지역 관광 산업 관심 바람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로 인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음	○		
"	광주FC를 서울FC로 방송함. 정확한 전달 필요	부정확한 호칭으로 심려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함. 해당 기자에게 알리는 한편 앞으로 재발 방지하도록 하겠음	○		
"	관광 산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관심 필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맞아 기획보도 준비하겠음	○		
"	여론조사 데이터 정확해 긍정 평가함.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해주길 바람	광주MBC 여론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정확한 데이터 검증을 거쳐 보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	농어촌 의료 문제 관심을 두고 다양한 보도 바람	지역소멸 시대 의료 양극화의 대안을 찾도록 취재 보도하겠음	○		
"	5.18에 관한 보도, 프로그램 등 제작 바람	5.18 46주년 기획보도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겠음	○		
"	호남선, 전라선 KTX화 문제에 관심 필요(박양우)	호남선 전라선의 증편과 지역의 SOC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하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지역의 문화 예술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바람	지역의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		
"	<테마기행 길>에서 소개한 청년들의 성공 사례에 관한 정보를 공유 해주길 바람	홈페이지에 방송 소개 정보를 게시하여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 (시 청 자 불만)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 시청자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 정보 제공 바람	시청자가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콘텐츠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4월)

일 시	2026년 4월 15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박종수 · 박양우 · 반수경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장은백 · 정인영 · 정희 위원(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서준배 콘텐츠본부장 직무대행,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봄이 왔다. 춘래불사춘이라 했다. 화창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중동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그 여파로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 끝날 때가 있겠다. 그때가 진정한 봄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후보자가 결정됐다. 광산구 민형배 의원이 됐다. 전남광주 통합시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도, 야당이 여당일 때도 이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 사장님 인사 말씀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다시 뵙게 돼 반갑다. 김민호 본부장이 안식월에 들어가고 서준배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광주 MBC 사옥이 철쭉이 아름다운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다 봄이 왔음을 느낀다. 그동안 노사 갈등이 심했는데 화합의 길을 선택했다. 회사도 거기에 답을 해서 더 나은 광주MBC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사장님도 그동안 힘드셨을 것이다. 위로와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 보고서항부터 해달라.
- 서준배 콘텐츠본부장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3월24일 '빛나는 당신 초대석'에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출연했다. 4월9일 ACC 국립극장 마당극 <홍길동이 온다>를 소개했다. 5월22일 <테마기행 길> 구례군 편이 방송 예정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지원 공모에서 <빛나는 나의 도시>와 화순군 복싱팀을 조명하는 <나비처럼 날아올라, STING> 2편이 선정됐다.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캠페인 제작 및 5월 한 달간 송출한다.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 <정오의 희망곡>, <놀라운 3시>, <라디오 칼럼> 등 방송했다.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를 위하여> 4월4일 방송한다. 디지털 콘텐츠로 4월16일 <더 프레지던트>에서는 김정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 편이 촬영 예정이며, 4월 말 박용진 규제 합리화 부위원장 촬영이 예정돼 있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결선투표에 앞서 후보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9일 광주MBC와 kbc 광주방송, 여수·목포MBC 공동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민형배, 김영록 두 결선 진출 후보의 양자 토론이었으며, 마지막 TV 토론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평균 2.8%, 분당 최고 6.7%가 나왔다. 전남광주 특별시장 민주당 결선투표 전 지역 언론 3사 공동여론조사를 뉴시스, 무등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김영록, 민형배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4월8일 18시 공개했고, 통합교육감, 주 청사 위치 문제 등도 조사했다. 네이버 뉴스 제휴 입점 공모에 참여했다. 네이버 입점을 위한 사내 TF 회의를 13차에 걸쳐 진행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3월26일 'K-관광 시대, 전남광주특별시 관광전략은?', 4월2일 '두 달 앞 6·3 지방선거, 판세는?'을 주제로 했으며, 4월9일 김영록, 민형배 결선투표 진출자 양자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계획으로 5.18 46주년 다큐 <항쟁과 헌법> 취재를 착수했다. 전두환 회고록 시작과 종말 10년간의 기록과 5.18과 부마를 헌법전문에 실은 원포인트 개헌 여부 등을 기록하고자 한다.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하여 광주MBC, 부산MBC, MBC경남 등 3사 공동 기획 취재를 준비 중이다. 부마항쟁 관련 국민의힘 부울경 국회의원 30명가량을 취재하고 <뉴스데스크>와 5.18 다큐에 반영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국내에 사례가 없어 해외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가제 <가지 않은 길>을 언론재단 제작지원에 응모하고, 독일과 프랑스, 뉴질랜드의 행정통합 사례를 취재해 10월에 방송할 계획이다.
- 박양우 위원장 :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달라. 질문 없으시면 제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박종수 위원 :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를 시청했다. 하우스 속 인공태양에 관한 뉴스

였다. 그 뉴스는 나주시 세지면에 있는 농가에서 멜론을 특화 재배하는 내용이었다. 뉴스 내용을 보니 보급재배라는 재배 방법의 장단점을 잘 반영하고, 유통에 관한 홍보 내용도 잘 다뤄졌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맙다. 세지 멜론은 겨울철에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 50%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지역 소득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작목이다. LED 등을 달아 수확량 등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뉴스에 소개하여 다른 농가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신기술이나 재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농업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뤄줬으면 한다.

- 반수경 위원 : -4월11일 <리얼비평 탐나는 TV> 시청자 pick 코너에서는 MBC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에 대해 다뤘다. 제시된 키워드를 주제로 게스트 중심의 토론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방탄소년단 공연 관련 내용이었다. 첫째는 방송 시점에 관한 의견이다. 방탄소년단 공연은 3월21일에 진행되었고 이미 공연 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저조한 시점에 거론하는 것은 방송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시기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방송시간이 토요일 8시30분인데, 특히 주말 시간의 아침은 젊은이들 시청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키워드에 따른 집중도를 위해 방송시간 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토론 내용에 관한 의견이다. 제시된 키워드에 따른 내용을 서로 의견제시를 할 때 긍정적이고, 잘된 점보다는 미흡하고 문제점을 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듣고 보는 시청자들은 자칫 왜곡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능하면 잘된 점, 좋은 점 등 긍정적인 내용도 말해주면 좋을 듯하다. 키워드에 따라 토론자가 한두 명이 바뀌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뭔가 집중이 되지 않았다.
- 설제학 위원 : -3월26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전남·광주 특별시 통합 후 지역의 관광 산업을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다수의 시청자가 많이 가보고, 먹어보고, 경험해 본 내용이라서 친숙하게 방송을 시청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남의 자연환경과 광주의 인문환경을 결합하여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시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한다. 지역 간의 연계와 통합 브랜딩이 필수적이지만,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패널분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었다.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지역만의 매력을 찾아다니는 트렌드에 대한 의견도 매우 좋았다.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언급 역시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시사용광로>를 시청하며 <광주MBC 보다>를 떠올리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지역 경제를 위한 다양한 관광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해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4월9일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홍길동 마당놀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단순히 공연 정보를 나열하지 않고, 감독과 배우의 인터뷰를 통해 공연의 깊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였다. 특히 광주 출신 예술가들을 조명하여 지역적 자부심을 고취한 점이 훌륭했다. 현대판 마당놀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으며 현장에서 그 생생함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일치기 세계 여행'에서는 여권도 필요 없는 여행, 고물가와 항공권 상승 등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맞춘 이색 공간 기획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인근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들을 감성적인 영상미로 담아내어 한 번쯤 떠나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다.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호응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에 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4월10일 <테마기행 길>에서는 지평선으로 대변되는 김제의 평면적인 이미지를 입체적인 반전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도와 바람의 영향이 적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보트와 제트스키를 즐길 수 있으며, 5월부터는 패들보드, 카약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는 기대하지 못했던 정보가 좋았다. 특히 요즘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김제를 선택한 청년들의 삶과 열정을 조명함으로써, 단순한 여행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재생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기획력이 돋보였다. 방송에서 언급된 청년들의 성공 사례가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 유한별 위원 : -<시사용광로> 'K-관광 시대, 전남광주특별시 관광전략은?'을 시청했다. 두바이즌득쿠키에 이어 '떡푼런'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광주 호박인절미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광주가 새로운 먹거리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음식이 관광 동기를 만드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열풍이 유행을 넘어 광주의 관광 자산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특별시 관광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지역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관광과 예술, 스포츠와의 융합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위주로 하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과제에 대해 공감했다. 현재 무안공항 재개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광객의 유입이나 지역 관광 산업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을 높일 방안 및 관광 수요가 지역민의 체감이나 소득으로 이어지는 방안에 대해 다룬 점 또한 인상 깊었다. 이후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 지역 관광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관광 산업에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보도의 중요성은 정확성이다. 3월 22일 경기에서 광주FC를 서울FC로 방송한 적이 있다. 정확한 방송이 필요하다. 이 점 유의해주길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시사용광로> ‘K-관광 시대, 전남광주특별시 관광전략은?’ 이 프로그램은 전남광주특별시라는 행정 체제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이를 단순한 정책적 홍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의 사활이 걸린 관광 산업과 결합하여 매우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통합되어 기존의 행정 경계에 갇혀 있던 관광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창출될 막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 이후의 핵심 과제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경계를 허무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브랜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과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합 이후 예상되는 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 중 관광 분야의 비중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타당하다. 특히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행정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관광 행정구조 개편’은 필수적이다. 또한, 모든 지역이 무분별하게 관광 산업에 매달리기보다 각 지역의 준비 상태와 특성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지역 발전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깊이 와닿았다. 결국 광주전남의 통합 관광전략은 ‘따로 또 같이’의 정신으로 경계를 허물고, 광주의 문화적 깊이와 전남의 자연적 가치를 디지털 전환 및 교통 혁신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메가시티를 만드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역 콘텐츠 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향후 후속 방송 계획 수립 시 콘텐츠 기반 관광의 비중을 더욱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 현대의 관광객은 단순한 장소 방문을 넘어 그곳에 깃든 스토리와 콘텐츠를 소비한다. 광주가 보유한 애니메이션, 게임, 실감형 콘텐츠 산업 자원이 전남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결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극대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성과인 관광 대전환의 청사진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환류해 주기를 기대한다. 광주MBC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최고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것에 대해 시청자위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한다.
- 이미진 부위원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됐다. 언론사마다 다양한 여론조사가 시행됐는데 결과가 달라 오히려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언론이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광주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가 정확하다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반갑기도 했다. 시청자위원이라 그런지 MBC에 관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달랐으면 문제가 됐을 수 있다.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송에서 다뤄주길 바란다.
- 장은백 위원 : -보도에 항상 관심이 많다. <뉴스데스크>를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선거 시기에 후보자 간 공약을 비교하여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아쉬운 것은 통합시와 관련한 부분이다. 여론조사를 시행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통합시가 빨리 추진되면서 시민 의견이 잘 모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새로 출범한 시에 대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방송이 이런 역할을 했을 때 통합시의 정책이나 방향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5.18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는데,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위적인 것도 있다. 제작하는데 좋은 내용 담아주시길 바란다.
- 정인영 위원 : -<뉴스데스크> ‘의사 없는 섬 도서벽지 의료 붕괴 위기’ 보도가 4월4일에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섬과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을 현장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매우 좋았다. 광주·전남 지역민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 다만 공중보건 의사 감소 원인과 정확한 통계, 정부 대책의 한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장기적인 해결책 즉, 지역의사제 확대, 순회진료 강화 등을 제안하는 후속 특집이나 그래픽 자료를 추가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특히 농어촌 의료 붕괴는 광주·전남의 생존 문제인 만큼 관심을 두고 별도 특집 토론 프로그램 편성을 비롯해 다양한 보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4월2일 <시사용광로>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통합 특별시장 경선이라는 지역 최대 현안을 3파 전 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룬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패널 구성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시청자들이 지역 정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만 토론이 전문가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실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행정통합이 시민 생활에 미칠 복지·교통·세금 등 구체적인 영향을 사례나 그래픽으로 보여주었다면 이해와 공감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 정희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김상욱 전당장 인터뷰와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를 관심 있게 봤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김상욱 초대직은 ACC의 운영 방향과 문화적 비전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었으며, 전당의 실제 공간과 프로그램, 시민 이용 모습을 함께 보여주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홍길동이 온다> 마당극은 콘텐츠의 깊이가 느껴졌다.

-5.18민주화운동 캠페인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향후 청년 세대 참여 인터뷰나 SNS 기반 짧은 영상, 체험형 콘텐츠를 병행하면 확산 효과가 커질 것이다. 5.18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길 바란다.

-<시사용광로>에서는 K-관광 시대를 주제로 한 전남·광주 관광전략 논의는 시의성이 높고 지역 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다른 지역이나 해외 성공 사례와의 비교 및 특정 관광 아이템을 집중 조명하면 더욱 좋겠다.

- 박양우 위원장 : -3월26일 'K-관광 시대 전남광주특별시 관광전략은?'을 주제로 한 <시사용광로> 프로그램은 제 전공 분야인지라 관심 있게 시청했다. 우선 관광, 문화예술, 문화기획 분야 전문가가 나온 출연진 구성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남광주 통합에 발맞추어 종합적인 관광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논의도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대담의 처음 시작을 광주 호박인절미 열풍 현상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한 것도 부담 없는 출발이라 좋았다. 광주가 고향인데도 호박인절미에 관해 처음 들었는데 바로 구입해서 먹어봐야겠다. 대담 내용들은 통합시의 숨은 명소,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경쟁력 전망, 관광 자원 경쟁력,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것, 행정구조 개편 방안, 교통 접근성 확대 방안, 마지막엔 지역민의 체감, 소득 연계 방안 등 소주제 또한 고루 망라된 알찬 프로그램이었다. 시간 관계상 심층적인 논의에 한계는 있었지만 대체로 다룬 만한 문제는 거의 다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시청자와 전남광주를 찾을 외지인들이 아마도 가장 관심이 있을 교통 문제에 관한 이야기 중 KTX 역을 중심으로 한 버스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정말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 문제는 실은 재정과 관련된 문제라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전남광주의 관광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일 것이다. 특히 이런 접근성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유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본질적으로 호남선과 전라선의 전 구간 KTX 완전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첨언해야겠다. 아직 미완성인 호남지역의 KTX 시설 가지고서는 경부선 통과 지역에 비해 관광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의미의 전남광주 관광 선진화는 탁상공론이 될 우려가 크다. 정치권이 총동원되어서라도 호남선과 전라선 전 구간의 KTX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안공항 재개와 이의 활성화 문제 또한 이 지역의 시급한 관광 과제이므로 전남광주통합시는 이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무겁게 다뤄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새로 출범하는 통합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됐으면 좋겠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으로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어서 양쪽 어디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챙길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에 드린 말씀이다.

-기타 시청자 의견으로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혼 시 반려견의 소유에 관해 설명했는데 시대상을 반영한 유익한 주제였다는 의견이다. 앞으로도 일상에 가까운 소재를 찾아 알기 쉽게 법 정보 전달을 바란다고 했다. 이 코너가 시청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법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시청자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지만 법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잘 다뤄주길 기대한다.

- 김낙곤 사장 : -다음 달 회의는 임기 마지막 회의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감사드린다. 5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4월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

끝.